

공군 ‘블랙이글스’, 광주 도심 상공 화려한 곡예비행

제1전투비행단 ‘스페이스 챌린지’

24일 오전 10시20분·오후 2시20분
국산 훈련기·주력 전투기 등 전시
태양관측 등 항공과학 활동 다채
오늘 연습비행 중 소음 양해 부탁

“가족들과 꼭 함께 가볼 계획이에요. 전투기 편대의 화려한 항공 묘기가 가장 기대네요.”

화려한 곡예비행으로 유명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전투기 편대가 강렬한 굉음과 함께 이번 주말 광주광역시 도심 상공을 힘차게 가를 전망이다. 에어쇼부터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까지 마련된 이번 하늘 축제는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짜릿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오는 24일 광산구 신촌동 광주 공군기지에서 ‘제46회 Space Challenge 2025 in 광주(스페이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스페이스 챌린지는 지난 1979년 모형항공기 날리기 대회로 출발해, 지난해부터는 일반 시민도 함께할 수 있는 대규모 항공문화축제로 탈바꿈했다. 개방형 에어쇼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지난 행사에서는 약천후 속에서도 4500여명이 찾는 등 큰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오는 24일 광산구 신촌동 광주 공군기지에서 ‘제46회 Space Challenge 2025 in 광주(스페이스 챌린지)’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제45회 행사에서 선보인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 모습.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오전 8시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공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공연으로 시작해 분위기를 띄운다. 이어 창단 5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지상 세리머니와 고난도의 곡예비행을 선보인다. 블랙 이글스는 지난 2023년 호주 애벌론 국제 에어쇼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유수의 국제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특수비행팀으로

자리잡았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20분부터 11시30분까지, 오후 2시20분부터 3시20분까지 두 차례 진행되는 에어쇼는 벌써부터 지역 주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형준(33)씨는 “평소 전투기에 관심이 많아,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곡예비행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지역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항공축제가 열리는 것도 흔치 않은 만큼, 꼭 가족들과 함께 찾아갈 계획”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올해 행사에는 국산 훈련기 T-50과 TA-50 Block2,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와 KF-16 등이 전시된다. 또한 항공기 시뮬레이터, 항공우주 체험존, 에어로켓·고무동력기 날리기, 태양 관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항공우주에 관심 있는 학생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의 면모를 갖췄다.

특히 수송기 탑승 체험, 고무동력기 날리기, 폼보드 전동 비행기 날리기 등 일부 프로그램은 이달 초부터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선착순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인기가 높아 조기 마감됐다. 행사장 내에는 푸드트럭과 먹거리 쉼터,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가 운영돼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울 전망이다.

이민규(32)씨는 “자녀와 함께 다양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를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 생각에 기대가 크다”며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항공우주과학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우(27)씨도 “지난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 올해는 전투기와 항공기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참석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전투기들을 눈앞에서 보고, 프로그램을 체험하

며, 더욱 깊은 흥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행사 당일에는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광주송정역(지하철) 3번 출구 인근에서 셔틀버스에 탑승할 수 있으며, 도보 이용자는 부대 후문을 통해 입장 가능하다. 개인 차량 이용 방문객은 부대 후문(송도로 114번길 60) 및 부대 정문(고내상길 3)으로 출입할 수 있지만,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할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항공우주와 공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행사와 연습 비행 중 시내 및 기지 인근 지역에서 비행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22일 오후 4시40분부터는 공군기지 상공에서 블랙이글스의 사전 연습 비행이 예정돼 있고, 기상 상황에 따라 연습 비행은 23일, 본 행사는 25일로 변경될 수 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준명 기자

비둘기 똥에 뒤덮인 차량… ‘날개달린 불청객’에 시민 한숨

광주 동구 공영주차장 피해 심각 먹이 주는 주민 탓에 개체수 증가

“비둘기 배설물들이 차에 묻을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예요, 닦기도 힘들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1일 오전, 광주 동구의 한 공영주차장. 주차된 차량의 본넷과 지붕, 유리창 위에는 비둘기 배설물 흔적이 여러곳 남아 있었다. 차량 위를 지나가는 전깃줄에는 비둘기 수십 마리가 앉아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배설물이 떨어졌다.

현장을 찾은 시민 백현숙(58)씨는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차가 금방 더러워져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차에 묻을까 봐 수건이랑 욕수를 따로 챙겨 다닌다”고 말했다.

이 주차장은 최근 들어 비둘기들이 몰려들며 차량 오염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

주차장 관계자는 “누군가가 이 주변에 먹이를 뿌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비둘기들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며 “전깃줄이 높아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쫓아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설물 피해는 차량 오염에만 그치지 않는다. 위생 문제와 도시 미관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27)씨는 “밥을 주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그럴수록 비둘기들이 주변에 더 오래 머무는 것 같다”며 “길을 지나다 날 때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는 비둘기 먹이 금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자치구별로 캠페인과 안내 현수막 설치, 기피제 배부 등 개별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먹이 금지 홍보와 함께 비둘기 피해 신고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중 남구만 조례를 제정, 23일부터 시행한다. 남구는 오는 11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 비둘기 먹이 주기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한다.

이정준 기자



비둘기 배설물로 뒤덮인 차량 모습.

광주시의회 헌법특강… “비상계엄은 지방자치 말살행위”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원 교수 초청

광주시의회 ‘법조레워치모임’은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헌법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의날’을 맞아 마련된 이날 강연에는 시의회사무처 직원 40여명이 참석해 진지한 학습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지방의회 활동 제한을 명시적으로 문제 삼았다”며 “이

는 단순한 행정집행이 아닌,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통해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반국가적 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그 자체를 억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렇기에 현재에서 ‘지방의회의 반국가 활동만 금지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강 주제는 전국적 여론과도 맞

닿아 있다. 한국일보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4%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의 70%를 포함해 이대남(20대 남성), 고령층 등 과거 핵심 지지층 다수가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일본처럼 정치가 위기를 맞을 때 지방자치가 중심을 잡는 사회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입법·사법·행정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력 분립 역시 현대 헌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5·18 당일 이재명 캠프 사창 ‘노쇼’…업주 2400만원 피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를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식당 주인 A씨는 이 후보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누군가로부터 노쇼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A씨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전야제 행사가 열린 지난 17일 이튿날 이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의 저녁 식사를 예약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주문자는 자신이 ‘이 후보 캠프 관계

자’라고 소개한 뒤 2400만원 정도의 고급 양주 3병도 식사 자리에 함께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주문자는 식당에 방문할 때 법인으로 결제하겠다고 A씨에게 특정 주류 업체를 소개해주고 해당 업체의 계좌로 양주값을 입금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입금 후 주문자는 돌연 예약을 취소했다.

A씨는 뒤늦게 이 후보가 TV 토론 일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준 기자

“이재명 후보 비서관입니다” 거짓말… 민주당 당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비서관을 사칭한 지역 당원 A씨(30대)를 21일 전격 제명했다.

A씨는 최근 광주 5개 구청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이재명 후보 비서실 비서관”이라고 속이며, 구청장과의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당은 이를 수상히 여긴 구청 측의 제보로 사실을 확인했고, 실제 면담은 성사되지 않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민주당 중앙당은 광주시당이 20일 비상정계를 요청하자마자, 같은 날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양부남 광주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최근 선거캠프 활동을 사칭하거나 명함을 도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일명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을 겨냥한 범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정성현 기자

전남 보성서 중학생 10명 가스중독

전남 보성 한 청소년수련원에서 중학생 10명이 집단으로 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21일 보성소방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51분께 전라남도 보성군 청소년수련원에서 ‘아이들이 가스에 중독됐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중학생 10명은 두통과 어지러움, 오한 증상을 보여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0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가스 밸브 공사 이후에 남은 잔류 가스가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정준 기자